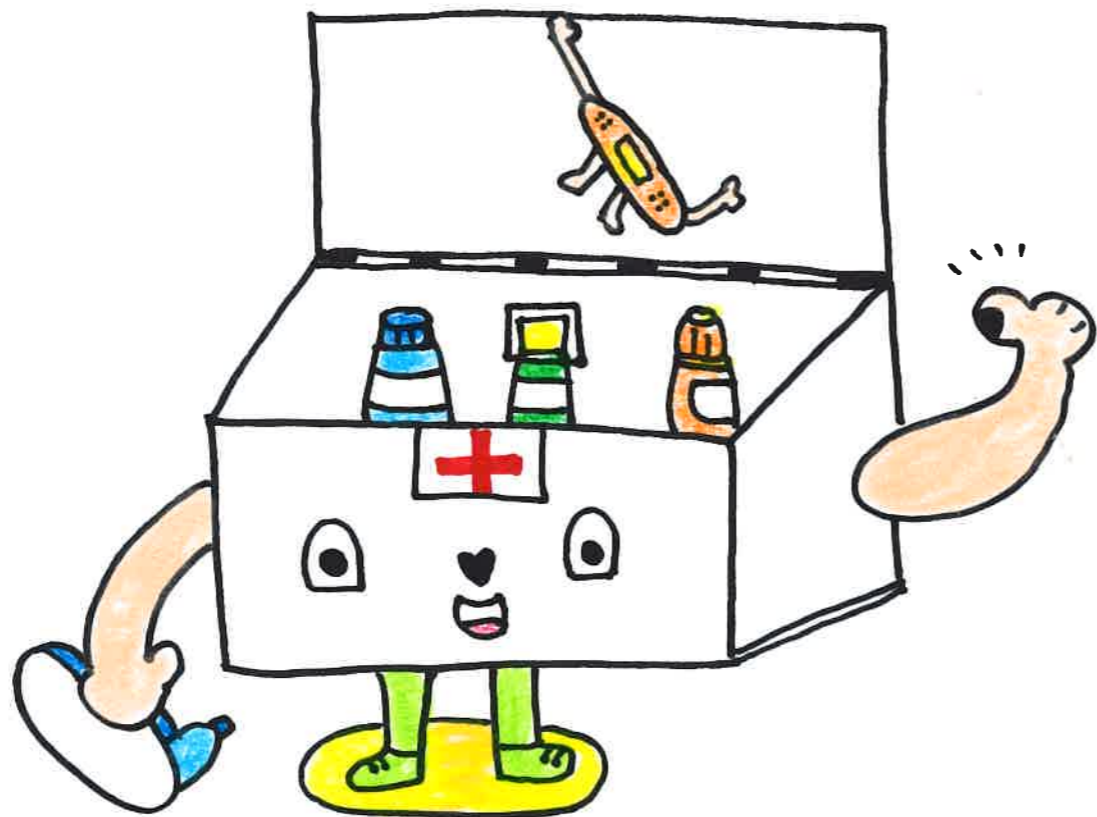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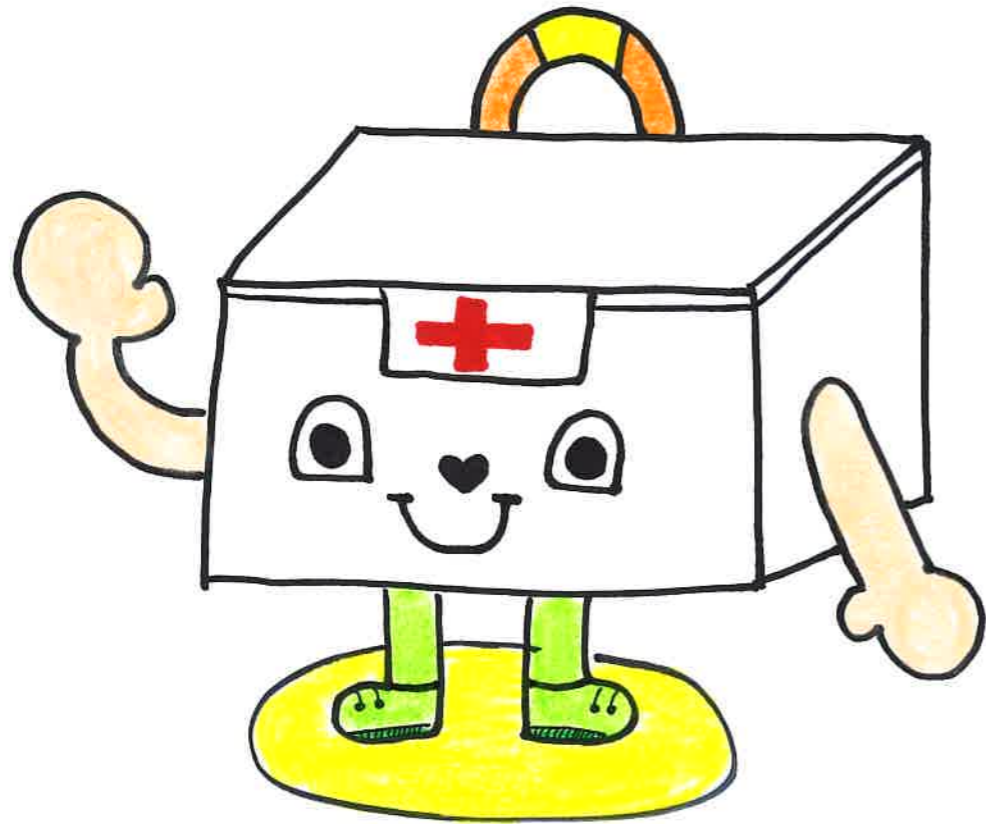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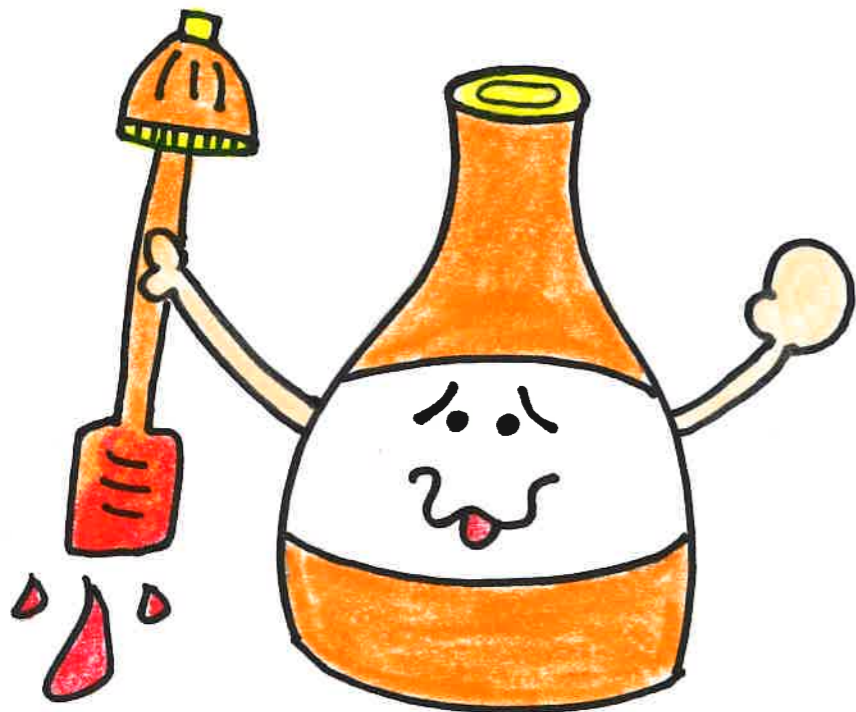
구급함이 들려주는 이야기



“안녕!
나는 여러 약들과 함께 살고 있는
구급함이라고 해.
내 친구들을 소개할게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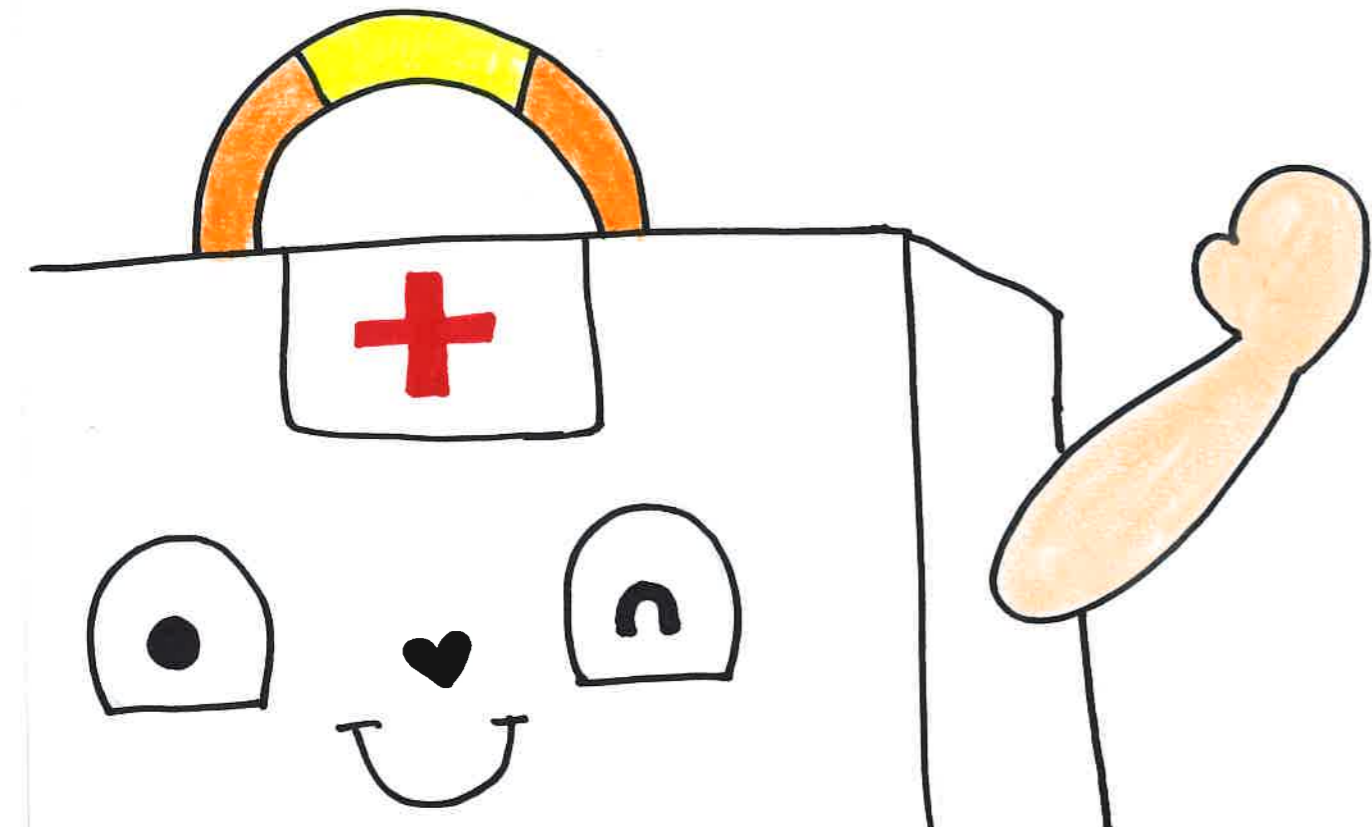
“나와 함께 살고 있는
소독약, 반창고, 해열제, 소화제 친구들이야
만나니깐 반갑지?
그런데, 우리 약 친구들이
요즘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.
어! 저기 울고 있는 소독약을 불러 볼까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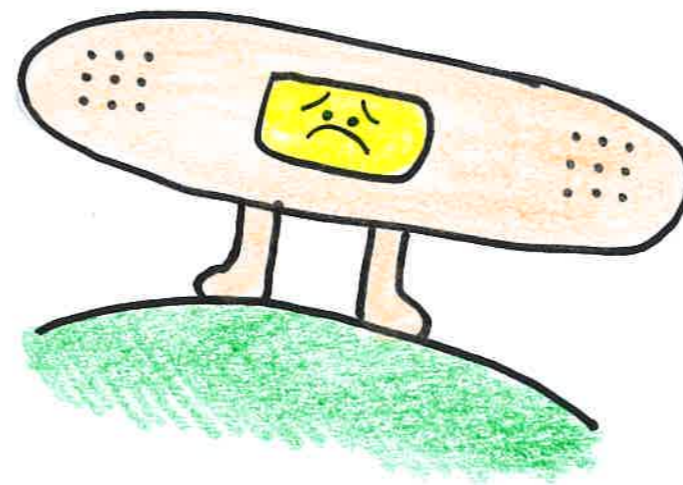
“잉잉 나 너무 속상해 .
나를 바르고 나서 뚜껑을 닫지 않아
내 소독약 액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.”

“그래 맞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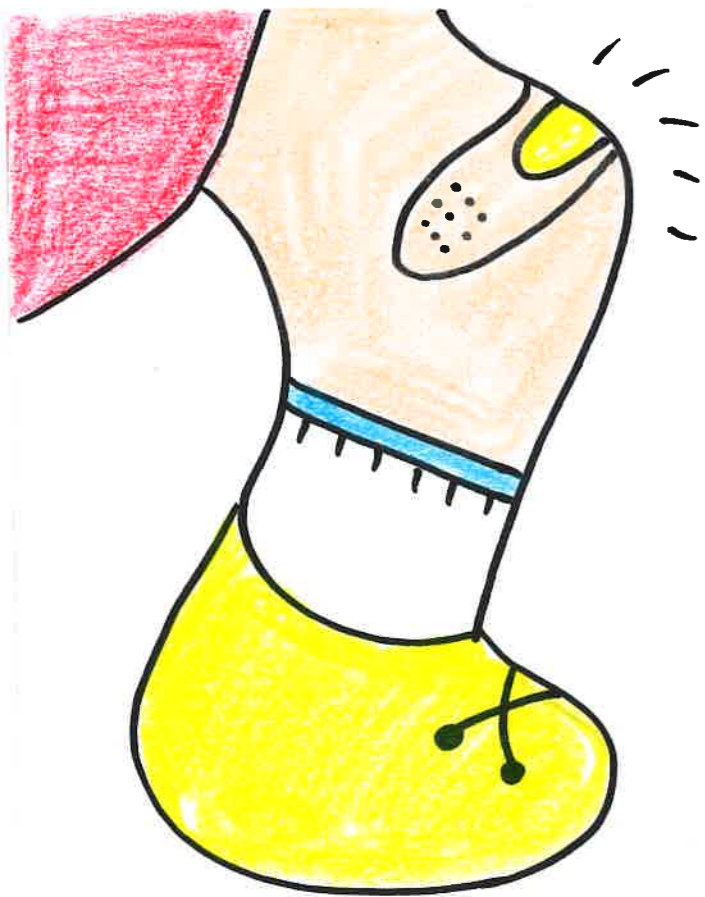
약을 사용한 후 뚜껑을 닫지 않으면 쏟아지거나 약이 말라 사용할 수 없게 되.
소독 약이 울지 않게 뚜껑을 꼭 닫아 주 볼까?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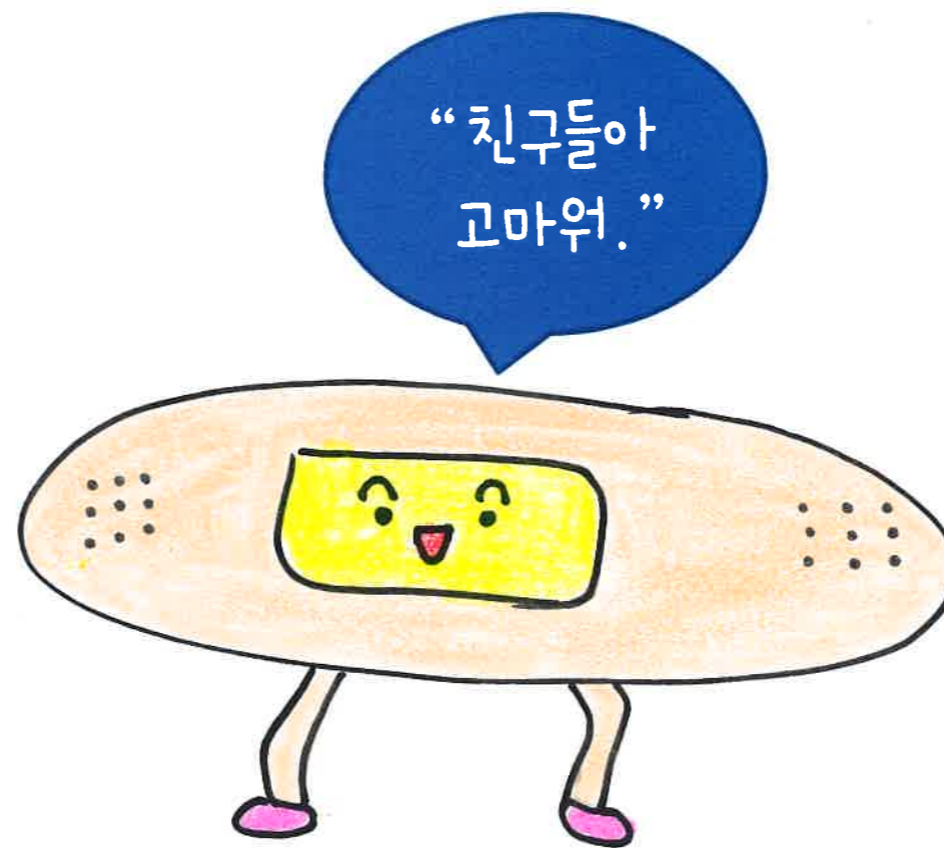
“이번엔 찡그리고 있는 반창고를 불러보자.”



“나는 상처났을 때 붙이는 반창고인데, 상처가 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 나를 붙이고, 버리는 친구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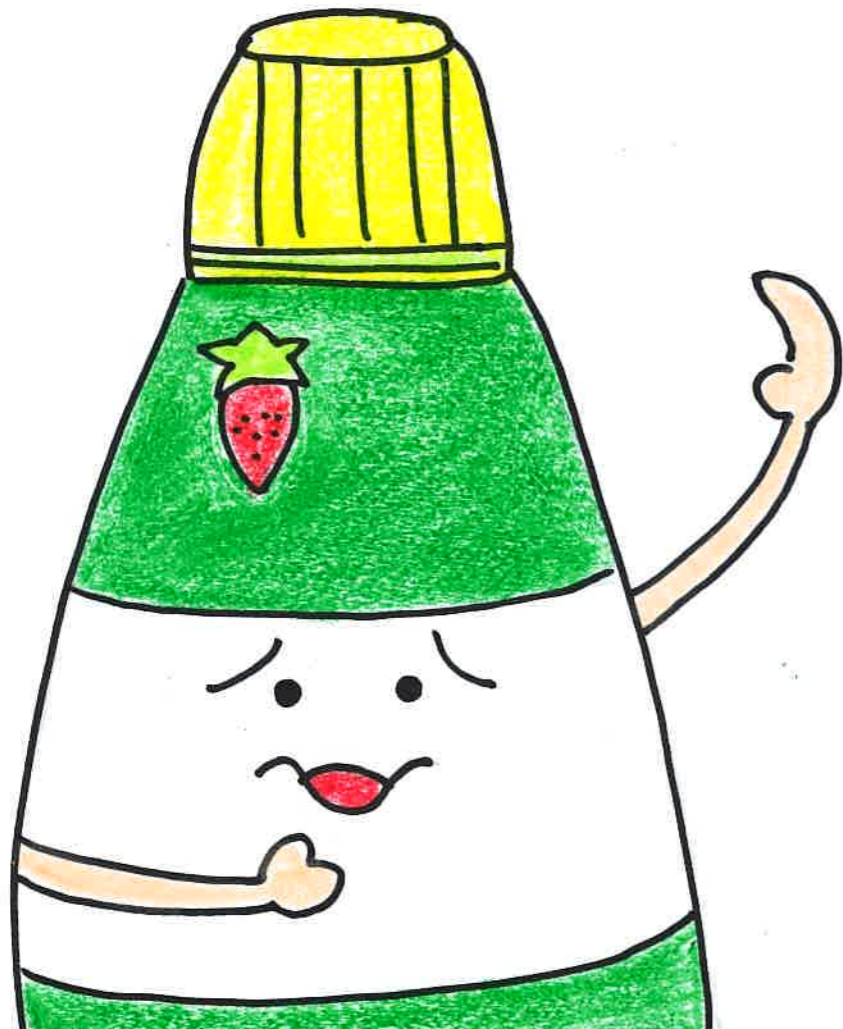


“우리 반창고가 손상하지 않게,
상처 났을 때 아껴서 사용하기로 약속 하는 건 어떨까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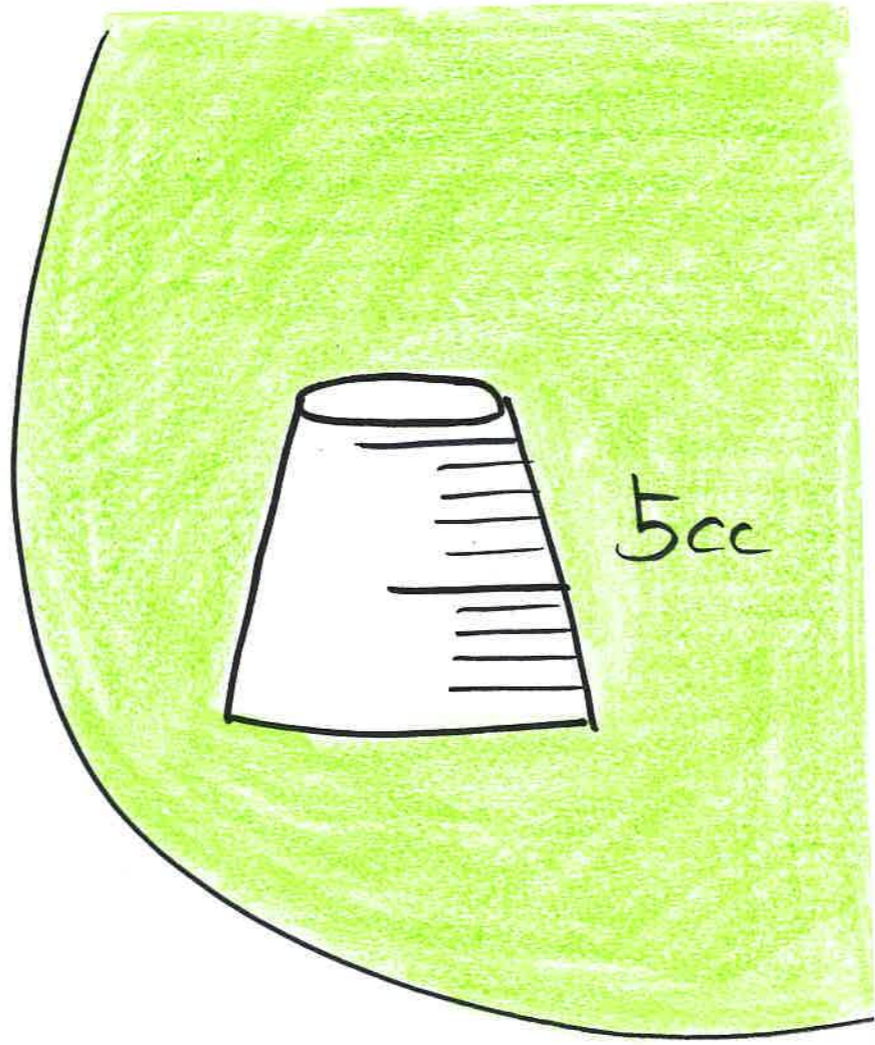


“어! 저기 해열제가 있네!
해열제야 왜 그러니?”

“나는 딸기 맛 향이 나는 해열제야.
열이 났을 때 나를 먹어야 하는데 딸기 맛이 맛있다면
마음대로 먹는 친구들 때문에 걱정이야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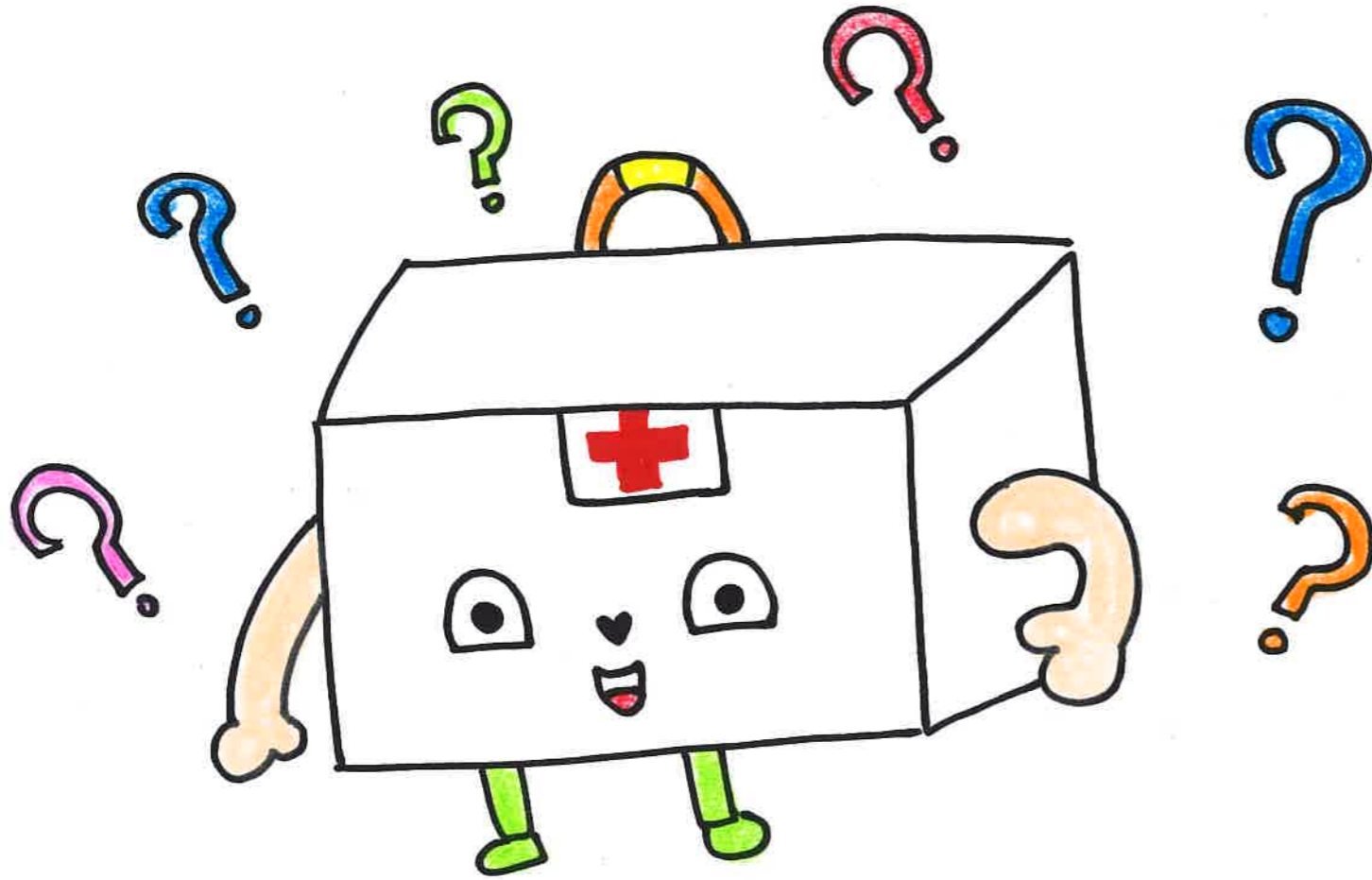


건강 약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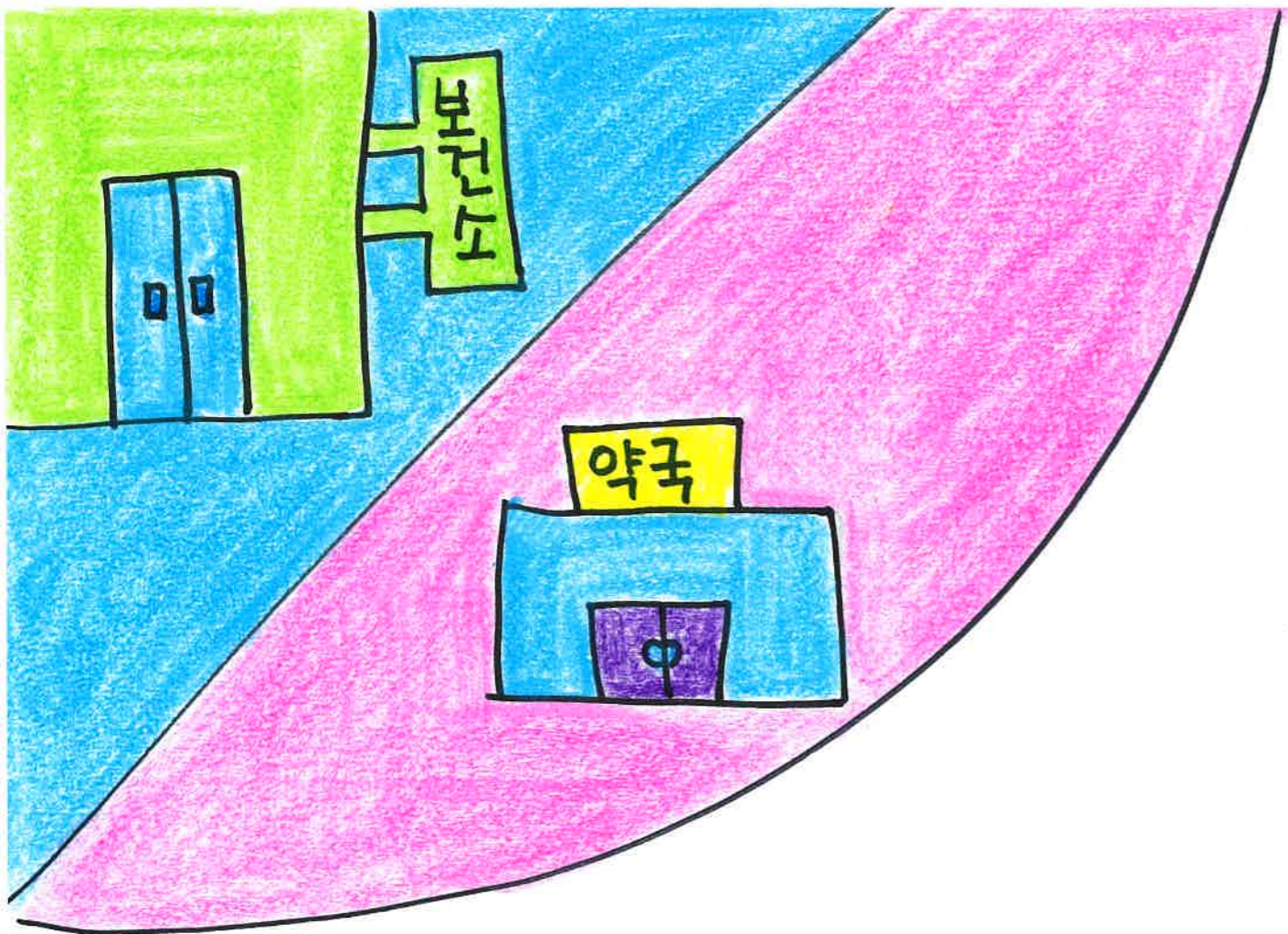
“그러면 절대 안돼!
약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처방 받은 후 부모님(보호자)가
주셨을 때에만 먹어야 해.
알맞은 양의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마.”

“이번엔 저기 소화제가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, 왜 그런지 물어볼까?
소화제야! 무슨 걱정이니?”





“나는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났는데, 그냥 내버려두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.
나를 모르고, 먹게 되면 더 아플수있거든.”



“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사고 나서
정해진 날짜 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약속이야.
유통기한이 넘는 약을 먹게 되면,
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게 되거든.”
유통기한이 넘었을 때엔
보건소나 약국에 가져가면 된단다.”



약 사용 후 뚜껑 꼭~ 닫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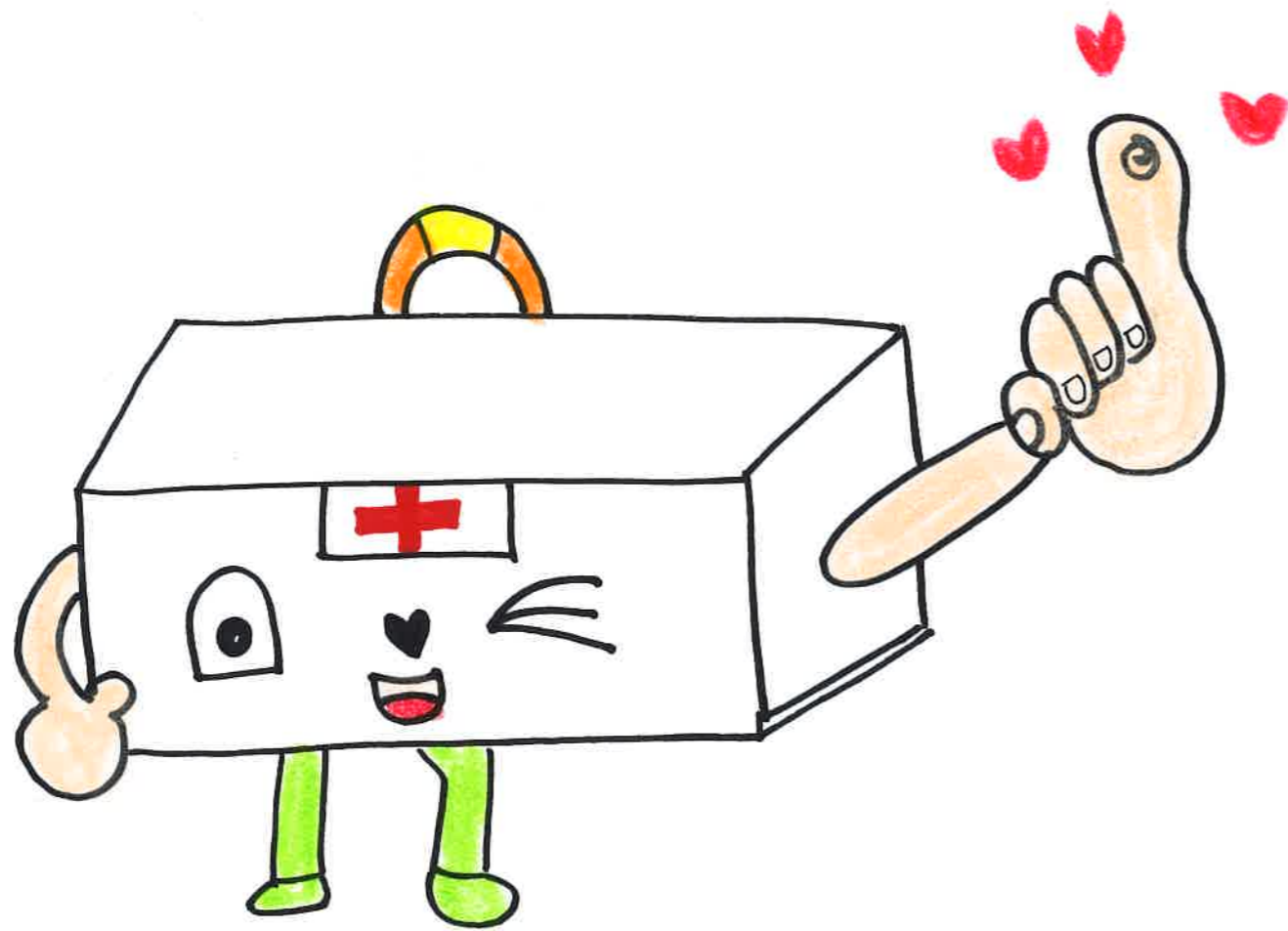
반창고는 낭비하지 말고,
상처났을 때에만 붙이기



약은 보호자가 주시는 것만 먹기



유통기한 꼭~ 확인하기



“잊지 말고, 꼭 약속해!”